

완도 해조류 가능성·가치 재확인했다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18만7000명 방문 '흥행' 전시·체험 콘텐츠 전시...수출 상담·계약 2170만달러

해조류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완도군이 해조류의 가치와 미래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 18만 7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했다.

박람회는 '2028 완도국제해조류산업 박람회' 유치·개최를 위한 예비 행사로,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3번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해조류산업 1번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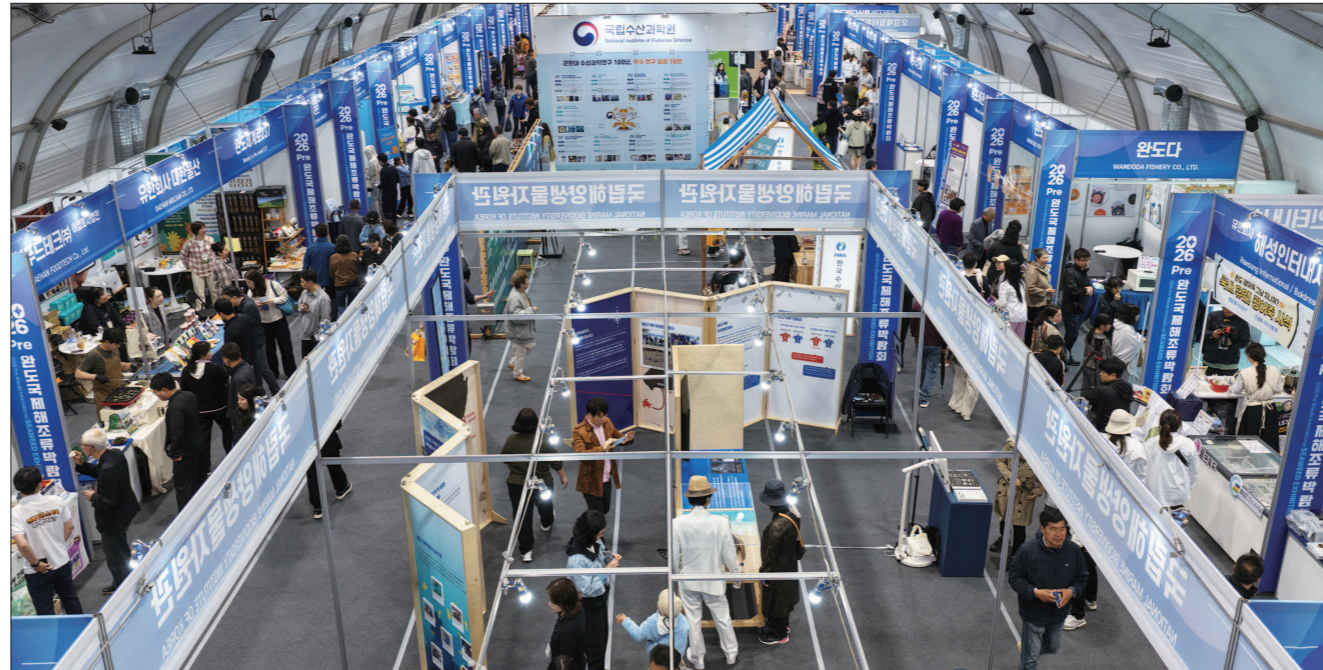
박람회는 전시와 더불어 해조류를 직접 보고, 먹고, 즐기는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기존 해조류센터를 새롭게 단장한 해조류 이해관에는 미디어 터널과 포토존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전면 배치했으며, 주제관에는 실감형 영상과 원형 미디어 콘텐츠 등을 통해 해조류의 생태계적 가치를 알렸다.

산업·홍보관과 수출상담회를 통해 비즈니스 산업 박람회의 입지를 다졌다. 오투기, 풀무원 등 식품 대기업과 지역 수출 기업 2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팝업 스토어와 전시를 통해 다양한 해조류 제품을 선보였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해양 생물 관찰과 해양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의 눈길·발길을 붙잡고 박람회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완도군이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수출 상담회에서는 프랑스, 일본, 중국 등 11개국 바이어와 총 39건, 2170만달러 규모의 업무 협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산업홍보관

사진제공=완도군청

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5건, 822만달러는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다.

박람회 기간 중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한 '블루카본 국제 포럼',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군은 Pre 박람회 성과를 철저히 분석·보완해 '2028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유치·개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 블루카본의 가치와 해양바이오 등 미래 산업 기

성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 해조류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면서 "박람회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영암 향교서 전통문화 즐긴다 가야금·판소리 등 무료 운영

영암군은 향교를 거점으로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국가유산청 주관 '2026년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10월까지 영암향교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도비 등 총 32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되며, 향교를 역사·문화 교육 공간이자 군민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향교마당 음악회와 가야금·판소리 교육, 전통 인문학 강좌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운영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영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조의 본향' 영암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방침이다.

김철 영암군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 군민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해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일상생활·경제·자치법규 개선

해남군은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6 해남군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공모전으로, 군민과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6월 5일까지이며,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경제·자치법규 전반의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역산업, 신산업, 안전, 복지, 일상생활, 자치법규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특히 해남군은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실용성 있는 제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접수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danil20000@korea.kr) 및 해남군 누리집)고 시공소에서 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사전검토 등을 거쳐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심사는 실현가능성(40%), 창의성(30%), 효과성(30%) 등을 종합 평가해 진행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신안 퍼플섬서 전국 최대 '프렌치 라벤더 축제' 군, 15~25일 보랏빛 물결 속 11일간 향연

신안군의 대표 관광지 안좌면 퍼플섬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프렌치 라벤더 축제'가 열린다. 퍼플섬의 대표 축제인 '라벤더 축제'는 지난 202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2025년 기준 누적 방문객 200만명을 돌파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퍼플섬은 이번 축제를 위해 라벤더 공원 관람로를 정비해 꽃밭 속에서 자유롭게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을 대폭 확대했다.

축제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개막식 부대행사로 전남시니어모델협회가 라벤더를 배경으로 한 패션쇼를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5월 라벤더를 시작으로 6월 벚꽃마련초, 10월 아스타라까지 연중 이어지는 보랏빛 물결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신안군 안좌면 퍼플섬에 핀 라벤더.

사진제공=신안군청

강진,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한다

강진교차로·중양초 숲 가꾸기 사업비 14억·6월 준공 목표

강진군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탄소중립 도시숲으로 강진교차로 기후대응도시숲과 강진중양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에 총 14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생활권 내 경관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진교차로 기후대응 도시숲은 도로변 유휴지에 수목을 심어 혼실가스 흡수, 폭염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강진산단 진입로인 강진교차로 구간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한 이팝나무, 홍가시 등 15종 5096주의 교목과 관목을 다층구조로 심어 생활권 공기질 개선 및 도시



강진중양초등학교 일원.

사진제공=강진군청

경관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강진중양초등학교 주변에 조성되는 자녀안심 그린숲은 학교 주변 보행로와 도로변에 녹지 공간을 확충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고,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그로우, 사철나무, 아스틸베 등 42종의 관목과 초화류 1만여본을 심어 휴식이 가능한 녹지 공간을 조성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녹색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진근 강진군 산림과장은 "이번 도시숲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 확보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생활권 주변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군민이 체험할 수 있는 녹색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이진숙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컨벤션홀 임대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